

8/2/26

설교 제목: 풍랑보다 크신 주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4 장 22-36 절

물 위로 걸으시다(막 6:45-52; 요 6:15-21)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막 6:53-56)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 사이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고, 당신은 남아서 무리를 돌려 보냅니다.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신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된 이유는 제자들을 먼저 보냄으로써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하는 무리의 의도와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각자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정치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올바르게 잡아 주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낸 후 예수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주시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내적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 보다 앞서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난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위기를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의 특징으로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곤 했습니다.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난지 한참된지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열광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떠밀려 배를 탄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급격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고 있었습니다.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 시에서 6 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저녁 6 시경)부터로 보며, 낮과 밤을 각각 12 시간과 4 경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낮과 밤의 시간 구분입니다.

낮 시간은 해가 뜨는 새벽 6 시를 제 0 시(시작)로 보고, 제 3 시(오전 9 시경), 제 6 시(낮 12 시) 제 9 시(오후 3 시경), 제 12 시(오후 6 시 일몰)로 구분합니다.

밤 시간은 제 1 경(저녁 6 시에서 밤 9 시), 제 2 경(밤 9 시에서 자정), 제 3 경(자정에서 새벽 3 시), 제 4 경(새벽 3 시에서 아침 6 시)으로 구분합니다.

밤 사경은 하루 중 가장 춥고 캄캄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견디며 초조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풍랑치는 어둡고 차가운 바다를 걸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 누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이 바다를, 그것도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시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겁을 합니다.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제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공포에 빠진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나니”라는 말씀 속에는 당신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등 수많은 이적을 행한 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합니다.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한 것은 지금 물 위를 걸어 오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신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며, 혈루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전 날 오병이어로 이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어 여차하면 바로 배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같은 위험천만한 모험을 시도해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요청에 주님은 “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은 당신을 믿고 오는 자에 대해 이미 보호와 안전을 마련해 두고 계신 권위에 찬 명령이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물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 닥치는 주변 광경이 들어왔고, 그 순간 베드로는 공포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러자 발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폭풍의 위험 가운데 침착히 인내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나 자연 현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소리를 질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 말씀으로 “오라”고 명하신 것과 달리 직접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번에는 말씀만 가지고는 구원하실 수가 없으셔서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 마디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붙잡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며 바로 절망에 빠져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 허부적 거리며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거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인 동시에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질서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 그분이 머무시는 인격에는 영원한 살롬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 이적들을 체험하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곧 신성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으로 건너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북쪽으로는 가버나움이, 남쪽으로는 디베랴가 위치해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바로 알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어 다같이 예수로 나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갈릴리 밤바다의 풍랑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평온하던 바다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듯,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고난이 닥쳐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주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믿음이 적은 연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삶에 불어 닥친 풍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등.....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지기 시작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때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은 마침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